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행동 연구¹⁾

Analysis of Consumer Behavior on Using Food Label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조교 이경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여정성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Kyung Hee, Lee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Jung Sung, Yeo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new food labeling system that would support effective consumer decision-making, by examining consumer behavior of food labels and its' related factor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10 housewives under 60-year-old who live in Seoul or Metropolitan area, using questionnaires and the illustrated material of labels.

Respondents generally considered food labels very important as devices. Among 12 items of label which are required to disclose, they evaluated circulation period, manufacture date, and price more important than business admission number and self standard number. Almost all respondents had no knowledge of regulations related to manufacture date, meaning of circulation period, and nutritional information.

Among 12 items of label, housewives read manufacture date, circulation period, and price more often than business admission number and self standard number. The

1)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respondents preferred the format of marking both manufacture date and expiration date on the same side, the format of printing both price and weight on the same side of package, the diagramatic type, and the format represented by ratio graph per daily value.

I. 문제제기

현대 사회는 기술개발에 의한 다양한 신제품의 출현과 기계문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로 이어지는 대량경제체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 요소들이 도처에 상존하게 되었다.

특히, 식품은 다른 공산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단순 소비재의 차원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생존 및 건강에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이므로 표시·유통·보관상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생산과정의 불가시성 때문에 ‘허위표시’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가진 정보와 소비자의 지식·정보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게 되므로, 소비자의 적정한 선택 및 구매를 위해서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로부터의 상품정보 제공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 중에서도 표시(label)는 상품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상품구매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식품에서의 표시사항은 이와 같은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점점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식품표시를 포함한 식품안전 관련법이나 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경향을 보인다.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술 경고문구 표시범위 논란,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표시 의무화 공방, 식품영양성분 표시 도입과 같은 식품표시 관련 문제들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 연장에 대한 한·미간 식품유통 마찰, 식품시장 개방에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²⁾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비자 정보로서 식품표시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형태가 아니라면, 소비자들이 표시를 사용·이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표시제도는 시장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식품정보 제공 그 자체보다 표시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행동이, 식품표시의 시장성과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식품의 규격과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는 소비자주의적 시각을 갖고,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및 태도·행동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식품표시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식품공전(食品公典)」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정해진 특정 식품 및 식품군의 성분, 성상 및 유통상의 특징 등을 규정한 원칙들을 수록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제도

(1)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상의 표시기준

우리나라의 식품표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표시기준과 식품공전상의 표시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표시기준에는 일반사항과 품목별 공통사항이 있다.

첫째, 일반사항으로,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알아보기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되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둘째, 품목별 공통사항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업허가(신고)번호 및 품목제조허가(신고)번호, 중량·용량 또는 개수, 원료명 및 함량, 보관상의 주의사항, 반품 또는 교환, 사용 또는 보존기준, 자가기준 및 규격인정제품, 열량 및 영양분 표시가 있다.

다음으로 식품공전상의 표시기준이 있다.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명으로 사용되는 특정성분의 함량, 다류의 착향료 사용사실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종전보다 식품선택정보 확대 및 표시기준 강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기존에는 금지되었던 착향료가 사용가능하게 되고 원재료의 제한은 없어졌으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원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함량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제품 상단에 기재하는 표시할자크기도 강화되어 종전의 14포인트에서 16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영양성분 표시사항으로 특수영양식품 및 영양소 등의 함량강조표시와 식품의 영양정보표시가 의무화되어, 영양정보표시·영양소 등 함량 강조표시·1인분량에 대한 용어정의, 표시대상, 표시내용

및 방법 등의 규정이 담겨져 있다.

이중에서 특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열량 및 영양분 표시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제조연월일에 대해 살펴보면, 종전에는 제조연월일만을 표시하는 식품과 제조연월일 및 권장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식품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89년 11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했던 제조연월일 표시가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연월일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고 도시락만이 그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는데 도시락의 경우에는 제조시간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유통기한에 관해 살펴보면, 앞서 밝혔듯이 1989년 1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제조일표시제와 제조일 및 유통기한 표시제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제도가 유통기한 표시제로 일원화된 데 이어, 95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는 '98년 말까지 식품유통기한을 전면 자율화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령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1차로 95년 9월까지 드롭프스, 통조림 등 식품의 특성상 변질우려가 적은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을 자율화하고 98년 말까지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을 업계의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자율화방침은 국내의 식품유통기한 정책이 무역장벽이 된다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열량 및 영양분 표시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독립된 영양표시규정이 없고 다만 표시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일부기준이 정해져 있다. 영양정보표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스턴트식품 및 유아공품 중 조제우유와 강화우유에 대하여는 제품의 단위중량(용량)당 포함된 열량 및 영양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강관련 광고주장의 내용으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기타의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이

나 특수영양식품 제조업 및 인삼제품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용성에 대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모든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허용범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내용이 매우 개괄적이어서 운영이나 해석상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2) 외국의 식품표시제도와와의 비교

1) 일본

식품표시 관련법은 식품위생법, 영양개선법, 농림물자 규격 및 품질표시법(JAS)이 있다. 일본에서는 다종의 영양식품이 등장함에 따라 식품위생법만으로는 영양식품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영양식품을 독립시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영양개선법을 제정하였다. 1968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 기본법에서 표시의 적정화에 관해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어, 1969년 후생성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용기 및 포장에 넣어진 가공식품 모두에 표시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농림성도 1970년 농림물자 규격법을 개정하여 JAS에 해당하는 식품 모두에 일정한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2) 미국

미국은 식·의약·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및 공정포장 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표시관리를 하고 있다.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식품은 안전·순수·건전하여야 하고, 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가공되어야 하며 사실대로 표시되고 포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식품의 이름, 용기, 표시의 표준과 정의를 규정하는 식품의 기준을 정하여 놓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분화된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영양정보량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3) 국제식품규격(CODEX)

FAO/WHO 국제식품규격 위원회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의해 제정된 국제식품규격 가운데, 표시에 관한 사항은 '포장식품의 표시에 대한 일반규칙'(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과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대한 일반규칙'(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Food Additives When Sold as Such), '표시에 대한 Codex 지침' (Codex Guidelines on Labeling)이 있다. 이 중에서 포장식품의 표시에 대한 일반규칙은 용어의 정의, 일반원칙, 포장식품의 의무표시사항, 임의

〈표 1〉 국가별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제도

국 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제도
국제식품규격 (CODEX)	최소품질 유지일자(Date of minimum durability)를 표시하며, 최소유효기한(Best before)이나 최대유효기한(Best before end)으로 나타낸다.
유럽공동체(EC) 영 국	일반적으로 최소품질 유지일자를 표시하고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최종사용일자(Use by date)를 표시한다.
미 국	일정한 법적 규정 없이,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나 표시사항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단, 이유식에만 최종사용일자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유효기간(Best before), 판매최종일자(Sell by), Better if used by, Manufacture date를 표기하고 있다.
일 본	후생성, 농림수산성은 제조 또는 가공연월일(수입식품에 있어서는 수입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기한표시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단, 기한표시나 제조연월일 표시를 인정하는 시행기간을 2년 정도 거쳐 기한표시로 통일해 나갈 예정이다.

〈표 2〉 미국과 일본의 영양성분 표시제도

국가	영양성분 표시제도	
미 국	영양표시제도의 내용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강제화하고 있고, 건강관련 광고주장이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이 통상 섭취하는 1회 섭취량에 근거하여 제품별로 1인분량을 제시하고 있다.
	영양성분표시의 구성	① 표제: 'Nutrition Facts'로 한다. ② 1인분량: 가정에서 흔히 이용되는 측정법(예: 1컵, 1스푼)과 미터법을 모두 제시하고, 그 양은 실제 국민이 섭취하는 평균량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 ③ 강제표시항목: 총 에너지량, 지방에서 오는 에너지량, 총 지방량, 포화 지방량, 콜레스테롤, sodium, 총 탄수화물, 식이섬유소, 당류, 단백질, 비타민 A와 C, 칼슘, 철. ④ 임의표시항목: 포화지방에서 오는 에너지량, 다가/단일 불포화 지방, 인, 가용성/불용성 섬유소, 당알콜, 기타 탄수화물, 기타 필수 비타민/무기질. ⑤ 1일 권장량에 대한 비율: 1인분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양을 1일 권장량(daily value)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다.
	영양소함량관련 광고주장 (Nutrient Content Claims)	FDA에서는 영양소 함량을 묘사하는 11가지 기본용어 및 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다.(free, low, reduced, fewer, less, light, more, lean, extra lean, high, good source).
	건강관련 강조표시가 허용된 광고주장 (Health Claims)	① 칼슘과 골다공증 ② 나트륨과 고혈압 ③ 식이지방과 암 ④ 식이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과 관상동맥성 심질환의 위험 ⑤ 섬유소를 함유한 곡류 제품, 과일 및 채소와 암 ⑥ 섬유소, 특히 가용성 섬유소를 함유한 과일, 채소 및 곡류 제품과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 ⑦ 과일 및 채소와 암
일 본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표시의 인정을 받아 JSD마크를 붙이기를 원할 경우, 이 규정에 맞게 표시한 제품은 마크의 표시를 허용하고 2년마다 재심사하여 보증함.
	특수영양식품의 표시제도	강화식품이나 유아, 임산부, 환자들의 발육, 건강유지 및 회복을 위한 취지를 의학·영양학적으로 표현한, 특별용도에 적합한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식품의 종류는, "① 강화식품, ② 특별용도식품-환자용 식품(환자용 단일식품, 환자용 조합식품), 임산부·수유부용 분유, 유아용 조제분유, 고령자용 식품, 특정보건용 식품"이다.

표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무표시사항은 식품명·성분표·실중량·명칭 및 주소·원산지 등이다.

4) 우리나라와의 비교

우리나라는 기존의 식품산업 육성의 목적에 소비자보호를 삽입하여 식품공전에 의한 품질표시기준 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관리가 주목

적인 식품위생법과 규격관리가 주목적인 공업표준화법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품질·안전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표시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표시의 정의에 있어, 일본은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심의 고객유인의 표시를 정의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위해방지를 위한 표시를 이행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표시를 이행하는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개념에 그치고 있으며, 식품표시에 있어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미기간, 생식품의 생식여부, 원산지 국명 등은 표기하고 자가기준 및 규격인정품목의 인정번호, 영업허가(신고)번호 및 품목제조 허가번호 등은 표시하지 않고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석철·최병록, 1990)

영양식품에 대한 표시규제에 있어, 일본은 영양개선법을 제정하여 영양식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관리에서 독립시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영양식품에 대한 관리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영양권장량으로 정해진 영양성분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영양권장량 설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충분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되어 있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양식품에서 비롯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의 요구증대와 업계의 제품차별화 전략이 일치하여 이미 많은 제품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영양표시가 시행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점점 영양성분표시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세계적 체인망을 갖고 있는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에서 자사제품의 선전에 이미 새로운 규정에 의한 영양표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행동 연구

(1) 중요도 평가수준

Jones와 Weimer(1977)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문이나 잡지의 정보보다는 식품포장상의 표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품포장상의 여러 표시사항들 중에서는 제조일자를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자숙, 1995; 김경희, 1994; 남상덕, 1987). 특히, 남상덕(1987)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구

매결정을 하거나 보관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표시사항인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제품명, 가격, 보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시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확인정도

남상덕(1987), Woodburn과 VanDeRiet(198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식품표시를 원하고 그 표시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품선택 결정에 있어서는 표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aly, 1976; Klopp & MacDonald, 1981; Lenahan 등, 1973).

표시 확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자녀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 상표 충성도, 표시 중요도 평가수준 등이 있다(최병선, 1990;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Feick, 1986; Jacoby 등, 1977; Jones & Weimer, 1977; Klopp & MacDonald, 1981). 이 중에서 교육수준·소득수준·표시 중요도 평가수준은 표시 확인정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3) 이해도

Daly(1976), Jacoby 등(1977), Lenahan 등(1973)의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표시에 대한 태도는 아주 긍정적이지만, 구매결정시 대부분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지도 못했고, 언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Jacoby 등(1974), Lambert(1977)는 식품에 있어 영양가와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증가시키려는 정책은 사실상 소비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상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Chaiken과 Eagly(1983)는, 양이 많거나 복잡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제품의 표시나 사용자 안내서가 방송 또는 광고보다 제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표시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인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Daly, 1976; Jacoby, 1977), 그 외에 광고(Lenehan, 1973)나 표현의 확실함(Kelly 등, 1989) 등도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선호도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품정보의 표시에 있어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정보의 형태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상대적 정보형태가 절대적 정보형태보다 소비자의 정보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소영(1991), Mohr 등(1980), Rudd(1986)의 연구에서도 모두 그래프 정보형태가 숫자정보형태보다 더 용이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nahan 등(1973)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영양가 수치를 1일권장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표시형태에 대해 확실한 선호를 보였다.

반면에, 숫자정보형태와 그래프 정보형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이익이 그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urton & Biswas, 1993). 한편 Woodburn과 VanDeRiet (1985)는 정보가 더 많은 표시보다 간단한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표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표시 확인정도 등을 들 수 있다(김소영, 1992; McCullough & Best, 1980).

〈연구문제 2〉 식품표시에 대한 확인정도는 어떠하며, 관련요인들은 무엇인가?

2-1. 식품구매시 실제로 어느 정도 표시를 확인하는가?

2-2.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중요도 평가수준은 식품표시에 대한 확인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며, 이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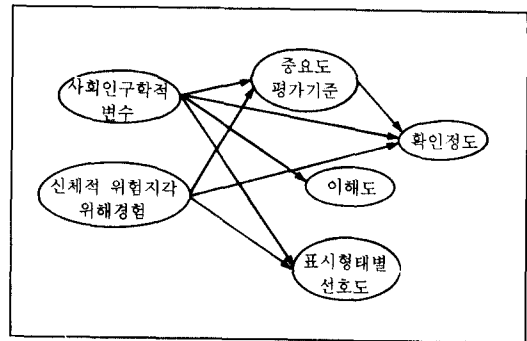
〈연구문제 3〉 식품표시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하며, 관련요인들은 무엇인가?

3-1. 우리나라의 현행 식품표시 규정과 식품 포장 지상의 실제 표시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3-2. 식품표시에 대한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식품표시형태별 선호도는 어떠하며, 관련요인들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식품표시에 대한 중요도 평가수준은 어떠하며, 관련요인들은 무엇인가?

1-1.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표시 항목들은 어떤 것인가?

1-2. 식품표시에 대한 중요도 평가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 조사도구

식품표시가 담겨있는 그림을 보여준 후,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의견을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식품인 가공식품 중 과자나 음료, 유아공품이나 통조림을 선택하였다.

1) 식품표시 중요도 평가수준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식품의 표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12개의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1점(전혀 필요하지 않음)에서 5점(반드시 필요함)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식품표시 확인정도

표시를 얼마나 확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도 평가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12개 항목으로 세분하고, 1점(전혀 확인하지 않음)에서 5점(매번 항상 확인함)까지 부여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식품표시 이해도

식품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식품표시규정과 실제 표시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12문항을 작성(Cronbach $\alpha = .52$)하였으며, 그 중 실제 표시내용에 대한 이해도 문항은 제시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표시를 보고 답한다. 전체문항 중 맞게 선택한 문항의 비율을 연구자가 평가하여 그 지식의 수준을 점수화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4) 식품표시 선호도

여러 가지 표시형태 중 특정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①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의 4가지 형태, ② 가격과 중량이 같은 면에 표시된 형태와 다른 면에 표시된 형태, ③ 영양성분이 표시된 형태와 표시되지 않은 형태, ④ 영양성분표시가 절대량으로 표기된 형태와 상대적 비율로 표기된 형태, ⑤ 영양성분 비교표가 그림으로 표시된 형태와 막대그래프로 표시된 형태, ⑥ 도표형 표시형태와 서술형 표시형태가 나타나 있는 각각의 그림을 제시하였다. 구매결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여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5) 식품에 대한 신체적 위험지각과 위해경험

식품에 대한 신체적 위험지각은, 권영걸(1991), 권자숙(1995)의 위험지각척도를 참고로 하여 식품이 안

전하지 않아 건강상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정도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과자나 음료, 유가공품, 통조림 등의 세가지 식품을 선택하여, 1점(전혀 느끼지 않음)에서 5점(많이 느낀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식품관련 위해경험은 식품으로 인해 메스꺼움, 복통, 구토, 설사, 피부질환 등의 위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되는 세 가지 식품 각각에 대해 위해경험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위험지각 및 위해경험이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적 위험지각 및 위해경험이 식품표시에 대한 중요도 평가수준, 이해도, 확인정도,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으나, 위험지각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한다는 연구는 다수 있다(권영걸, 1991; Jacoby 등, 1978).

(2) 자료수집·분석방법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주부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1995년 8월에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440부 중 최종 410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주부들의 연령은 30대가 51.5%, 40대가 29.9%였으며, 자녀가 있는 주부는 85.6%였다. 전업주부가 51.1%였으며, 취업주부(48.9%) 중에는 전일제 취업(30.3%), 시간제 취업(10.3%), 가내 부업(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가 70.7%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49.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및 임시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 100~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표 3〉 식품표시에 대한 중요도 평가수준 및 확인정도의 전반적 경향

항 목	중요도 평가수준 평균 (표준편차)		확인정도 평균 (표준편차)	
	과자나 음료	유가공품·통조림	과자나 음료	유가공품·통조림
제조업소명(상호)	4.85 (.47)	4.87 (.41)	3.98 (1.06)	4.35(.94)
제조연월일	4.96 (.30)	4.98(.21)	4.36(.94)	4.73(.63)
유통기한	4.99 (.13)	4.98(.23)	4.46(.91)	4.75(.57)
영업 및 품목허가 번호	4.42 (.89)	4.41 (.89)	2.42 (1.14)	2.65 (1.22)
중량, 용량 및 갯수	4.64 (.72)	4.67 (.68)	3.26 (1.20)	3.50 (1.19)
원료명 및 합량	4.74 (.62)	4.77 (.59)	3.45 (1.16)	3.57 (1.14)
보관상 주의사항	4.81 (.49)	4.88(.46)	3.65 (1.17)	4.00 (1.07)
반품 또는 교환	4.80 (.51)	4.84 (.45)	3.29 (1.25)	3.53 (1.22)
사용법	4.64 (.78)	4.64 (.76)	3.62 (1.29)	3.75 (1.23)
자가규격 및 기준 번호	4.01 (1.05)	4.08 (1.00)	2.28 (1.09)	2.46 (1.25)
열량 및 영양분 표시	4.59 (.72)	4.66 (.67)	3.30 (1.20)	3.52 (1.27)
가격	4.90(.39)	4.88(.42)	4.48(.76)	4.53(.78)
t 값	.894		4.569***	

* < .01 ** < .05 *** < .001

〈표 4〉 식품표시규정과 실제표시내용에 대한 이해도

	문 항 내 용	정답 빈도(%)	오답 빈도(%)	계 빈도 (100%)
식품 표시 규정	① 식품포장지에 표시된 내용은 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328(80.5)	79(19.5)	407
	② 제조업자가 원한다면, 제조연월일을 안써도 된다	21(5.1)	388(94.9)	409
	③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400(97.8)	9(2.2)	409
	④ 특수영양식품은 반드시 영양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344(84.5)	63(15.5)	407
	⑤ 영양정보표시는 1kg, 1l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61(15.0)	345(85.0)	406
실제 표시 내용	⑥ 96년 6월 2일부터는 팔아서 안된다	328(80.4)	80(19.6)	408
	⑦ 96년 6월 2일부터는 먹어서 안된다	69(17.0)	338(83.0)	407
	⑧ 이 제품은 총 10인분 정도를 제공해준다	148(37.3)	249(62.7)	397
	⑨ 원료중에 옥수수가 전체의 반정도를 차지한다	325(80.2)	80(19.8)	405
	⑩ 이 제품은 일단 구입하면 반품을 할 수 없다	324(79.4)	84(20.6)	408
	⑪ 씨리얼 30g과 우유 한컵(120ml)에는 124cal의 열량이 포함되어 있다	134(33.1)	171(66.9)	405
	⑫ 우유 없이 1일권장량 만큼의 비타민 C를 공급하려면, 아몬드 후레이크 100g이 필요하다	96(23.7)	309(76.3)	405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요도 평가수준과 확인정도 및 이해도의 전반적 경향

(1) 중요도 평가수준과 확인정도의 전반적 경향

첫째, 주부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식품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표시항목 중 특히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가격 등은 상당히 중요시한 반면, 영업 및 품목허가번호나 자가규격 및 기준번호는 그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

과자나 음료 표시, 유가공품이나 통조림 표시에서 둘 다 유통기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과자나 음료 표시에서는 가격을, 유가공품이나 통조림 표시에서는 유통기한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그러므로 현행법상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함께 표기하도록 식품표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부 소비자들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가격 등의 항목은 많이 읽어보지만, 영업 및 품목허가번호와 자가규격 및 기준번호는 눈여겨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나 음료에 비해 유가공품이나 통조림을 구매할 때, 표시를 더 많이 확인하고 있었다(〈표 3〉 참고). 그리고 표시를 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 표시는 식품의 안전도 및 신선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잘 확인하지만, 영업 및 품목허가번호나 자가규격 및 기준번호는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거나 보관하는 것과 직접 연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읽어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유가공품이나 통조림은 과자나 음료에 비해 부패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특히 중시하고 확인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2) 표시 이해도의 전반적인 경향

식품표시 규정과 실제 표시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각각 평균 2.8과 3.5를 중심으로 정규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표시에 대한 이해도는 중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연월일과 관련된 규정이나 유통기한의 의미, 영양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표 4〉 참고). 국민건강과 영양상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영양정보표시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소의 명칭을 모르거나 간단한 영양가도 계산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영양정보표시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2. 중요도 평가수준, 확인정도 및 이해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위험지각과 위해경험은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 하나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자녀여부와 취업여부는 이분변수였으므로 가변수화하였다. 즉, 무자녀일 경우, 비취업일 경우에 0의 값을 갖는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5점 척도화하였으며, 소득수준은 100만원미만,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6점 척도화하였다.

첫째, 관련변수 중 신체적 위험지각만이 소비자의 표시 중요도 평가수준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5〉 참고). 즉, 신체적 위험지각이 클수록 표시를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식품의 안전성을 의심할수록 식품에 대한 정보인 표시내용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표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둘째, 표시 확인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그 영향력 순으로 표시 중요도 평가수준, 자녀여부, 신체적 위험지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참고). 즉,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가 있고, 신체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표시를 더 많이 확인하고 있

〈표 5〉 표시 중요도 평가수준·확인정도·이해도의 중회귀 분석

독립변수	중속변수	중요도 평가수준	확인정도	이해도
		B (Beta)	B (Beta)	B (Beta)
연령		-.04 (-.03)	.02 (.01)	-.03 (-.13*)
자녀여부		2.65 (.11)	6.02 (.13*)	.24 (.05)
취업여부		-.60 (-.04)	2.22 (.07)	-.15 (-.04)
교육수준		-.51 (-.06)	.59 (.04)	.38 (.21***)
소득수준		.21 (.04)	-.20 (-.02)	-.04 (-.03)
신체적 위험지각		.70 (.22***)	.69 (.11*)	
위해경험				
중요도 평가수준			.68 (.32***)	
상수		105.40	-4.52	6.54
R ²		.069	.155	.061

* < .05 ** < .01 *** < .001

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자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 표시를 보다 주의깊게 살펴보게 되고, 자녀의 성장발육을 돕기 위해 열량 및 영양분 표시 등을 눈여겨보게 되기 때문에, 표시를 더 확인하는 경향을 나타냈을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표시가 식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보다 잘 알아서 표시를 더 눈여겨보리라고 예상했으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식품표시에 대해 홍보하거나 주시시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수준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표시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교육수준, 연령순이었다(〈표 5〉 참고). 즉,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표시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표시용어도 더 많이 알고 새로운 표시내용도 더 빨리 배워 활용하므로 표시를 더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3. 표시 선호도

(1) 전반적 경향

첫째,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에 대해서는, 둘 다 구체적인 날짜로 표기한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

(61.4%), 제조연월일 없이 유통기한만 표기한 형태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8%). 또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다른 면에 표기된 형태(7.9%)보다는 같은 면에 표기된 형태(90.1%)를 선호하였다.

둘째, 가격과 중량 표시는 가격과 중량을 같은 면에 표기한 형태(91.9%)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과 중량이 다른 면에 표기되어 있으면 단위중량당 가격을 계산하여 비교구매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같은 면에 표기되기를 원할 것이다.

셋째, 도표형 표시와 서술형 표시중에서는 도표형 표시를 선호(84.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가 서술형으로 길게 나열된 것보다는 간결하게 도식화된 것이 전달받는 사람의 정보처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므로, 응답자들이 도표형 표시를 더 선호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영양성분표시가 없는 것(1.5%)보다는 있는 것(98.5%)을 훨씬 더 선호하지만, 사실상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3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양성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단위중량당 함유량을 1일권장량당 비율의 그래프로 표기한 형태를 가장 선호(46.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형태가 절대량으로 나타낸 형태보다 정보처리상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교육수준에 따른 표시 선호도

항 목		교육 수준		χ^2
		고졸이하 빈도(%)	전문대졸이상 빈도(%)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둘다 구체적인 날짜로 표기	120 (57.7)	130 (68.8)	10.078**
	제조연월일은 구체적인 날짜, 유통기한은 기간으로 표기	64 (30.8)	52 (27.5)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다른 면에 표기	24 (11.5)	7 (3.7)	
	계	208 (100.0)	189 (100.0)	
영양성분표시 3형태	숫자로 표기	50 (23.5)	45 (23.2)	8.737*
	1일권장량당 비율을 숫자로	77 (36.1)	46 (23.7)	
	1일권장량당 비율을 그래프로	86 (40.4)	103 (53.1)	
	계	213 (100.0)	194 (100.0)	
도표와 서술형 표시	도표형 표시	164 (78.8)	172 (89.6)	7.784**
	서술형 표시	44 (21.2)	20 (10.4)	
	계	208 (100.0)	192 (100.0)	

* < .05 ** < .01

다섯째, 다른 식품과의 영양성분 비교표에 있어서 는 그림으로 표기한 형태(53.3%)와 막대 그래프로 표기한 형태(46.7%)에 대한 선호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으로 표시한 것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은 정보를 숫자로만 표시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2) 관련변수에 따른 표시 선호도의 차이

관련변수에 따라 표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연령, 자녀여부, 취업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 위해경험에 대해 분할표 분석을 해 본 결과,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 영양성분표시 3형태, 도표와 서술형 표시의 선호도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참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둘 다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한 형태를 선호하고, 1일권장량당 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한 형태를 선호했으며, 서술형보다는 도표형 표시를 더 선호하였다.

이렇듯 교육수준에 따라 표시 선호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학력 집단이 고학력 집단보다 표시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태였고, 현행 식품표시는 소비자들에 의해 그다지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현행법상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삭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부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제조일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함께 표기하도록 식품표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부들은 식품을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늘상 구매하는 식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이나 정책을 통해서 표시의 확인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신체적 위험지각이 클수록 식품표시를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식품이 안전하지 않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널리 인식시켜, 식품표시 확인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주부들이 표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표시 사용법이나 표시용어 등에 대한 생활 교육을 통해 표시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확인하도록 장려한다면 표시가 식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식품표시 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 표시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둘 다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연월일 표시가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주부는 극히 드물었으며, 유통기한의 의미와 영양정보 표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부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조사되었으므로, 식품표시 및 영양정보 관련 교육과 저학력 소비자 대상 특수교육을 시행한다면 주부들이 식품표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나, 가격 및 중량 표시에 있어 같은 면에 표기한 형태를 더 선호하였으므로, 식품구매결정을 할 때 함께 비교해야 할 표시항목들은 같은 면에 인접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면 나열식으로 서술하기보다는 도표로 정리하여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 의사결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영양성분을 표시하되 1일권장량당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하고, 더불어 영양정보표시를 사용하고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한다면, 유용한 정보로서의 식품표시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표시는 그대로 유지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된 형태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교육을 통해 표시에 대한 이해도와 확인정도를 높여

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권영걸 (1991).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과 정보탐색 활동요소에 관한 실증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권자숙 (1995).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정보요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 김경희 (1994). 현행 식품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4) 김석철·최명록 (1990). 표시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5) 김소영 (1991). 영양분석표시 정보형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 6) 남상덕 (1987). 소비자주의에 입각한 식품의 표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7) 최병선 (1990).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소비자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28(1), 179-210.
- 8)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소비자 위해실태 및 안전의식 조사.
- 9) Burton, S. & Biswas, A. (1993). Preliminary Assessment of Changes in Labels Required by the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7(1), 127-144.
- 10) Chaiken, S. & Eagly, A.H. (1983). Communication Modality as a Determinant of Persuasion: The Role of Communicator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241-256.
- 11) Daly, P. A. (1976). The Response of Consumers to Nutrition Labeling.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0(2), 170-178.
- 12) Feick, L.F., Herrmann, R.O., & Warland, R.H. (1986). Search for Nutrition Information: A Probit Analysis of the Use of Different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2), 173-192.

- 13) Jacoby, J., Chestnut, R.W., & Fisher, W.A. (1978). A Behavioral Process Approach to Information Acquisition in Nondurable Purchas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 532-544.
- 14) Jacoby, J., Chestnut, R.W., & Silberman, W. (1977). Consumer Use and Comprehension of Nutrition In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 119-128.
- 15) ———, Speller, D., & Kohn, C. (1974). Brand Choice Behavior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Load: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33-42.
- 16) Jones, J.L. & Weimer, J.P. (1977). Food Safety: Home-maker's Attitudes and Practices. *Agriculture Economic Report*, 360.
- 17) Kelley, C.A., Gaidis, W.C., & Reingen, P.H. (1989). The Use of Vivid Stimuli to Enhance Comprehension of the Content of Product Warning Messag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2), 243-266.
- 18) Klopp, P. & McDonald, M. (1981). Nutrition Labels: An Exploratory Study of Consumer Reasons for Nonus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5(2), 301-316.
- 19) Lambert, Z.V. (1977). Nutrition Information: A Look at Some Processing and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4, 126-132.
- 20) Lenahan, R.J., Thomas, J.A., Taylor, D.A., Call, D.L., & Padberg, D.I. (1973). Consumer Reaction to Nutritional Labels on Food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7(1), 1-12.
- 21) McCullough, J. & Best, R. (1980). Consumer Preferences for Food Label Information: A Basis for Segmenta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4 (1), 180-192.
- 22) Mohr, K.G., Wyse, B.W., & Hansen, R.G. (1980). Aiding Consumer Nutrition Decisions: Comparison of a Graphical Nutrient Density Labeling Format With the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162-172.
- 23) Rudd, J. (1986). Effects of Nutrition Label Format on Consumer Nutrition Decision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47-49.
- 24) Woodburn, M. & VanDeRiet, S. (1985). Safe Food: Care Labeling for Perishable Foo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3-10.